미국 마감 시황

2008.11.20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19일 뉴욕증시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도산 위기와 글로벌 경기후퇴 심화 우려의 증폭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며 폭락.

다우지수는 전일대비 427.47p(5.07%) 떨어진 7,997.28을 기록하며 8,000선이 붕괴. 다우지수의 30종목이 모두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씨티그룹은 주가가 23% 폭락해 13년래 최저치로 마감. 씨티는 구조화투자회사(SIV)로부터 174억 달러의 자산인수를 발표.

S&P500 지수는 52.45p(6.12%) 내린 806.58에 마감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6.85p(6.53%) 하락한 1,386.42에 장을 마감.

이날 증시는 미국 자동차업체 '빅 쓰리'의 구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시작. GM의 주가는 9.7% 하락했으며 포드는 24%가 넘는 폭락세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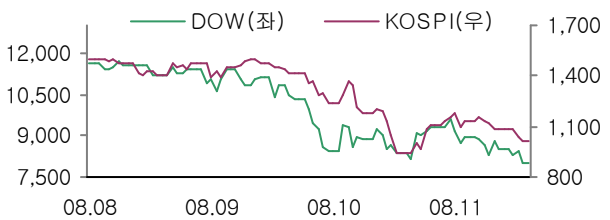
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주택착공건수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에 낙폭을 확장.

미국 10월 소비자 물가지수(CPI)는 전월대비 1% 떨어져 1947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후 최저치를 기록. 주택착공건수는 전년대비 4.5% 떨어진 연율 79만1,000채를 나타내 사상 최저치를 기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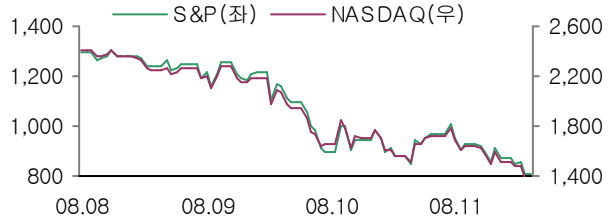
10월 공개시장위원회(FOMC) 의사록에서 미국의 경기침체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증시는 낙폭을 확대. 장 마감 1시간을 앞두고 8,000선 마저 붕괴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7,997.28	-5.07	-3.45	-12.50	-13.69	-29.53	-38.53
S&P(좌)	806.58	-6.12	-5.36	-15.34	-18.15	-36.32	-43.98
NASDAQ(우)	1,386.42	-6.53	-7.52	-17.56	-21.67	-41.85	-46.61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